

서민 긴급지원제 너무 까다롭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사장되고 있다.

정부는 갑자기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을 신속히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긴급지원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조건과 자치단체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가정이 위기상

이 되더라도 총 예산의 35% 내외의 지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7억여원은 불용액으로 남아 1천700여 가구가 혜택을 못 보는 셈이 된다.

전남지역의 지원은 더 인색하다. 올해 총 70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지난 10월 현재 1천400가구에 11억원만 지원하는데 그쳐, 연말에 50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내의 경우 각 구청마다 지원액과 대상의 편차도 크다. 광주 남구는 11월 말 현재 3억9천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인구가 배 이상 많은 북구는 1억8천867만원, 광산구는 6천776만원만을 지원하는 데 그쳐 자치단체의 홍보 부족도 긴급복지제도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격·조건 엄격... 퇴짜 일쑤 광주 17억·전남 50억 못써

황에 빠졌을 때 1개월(총 4회 지원 가능)간의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그러나 지원 조건인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지원 자격 또한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당초 정부 예상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당초 올 9개월간 총 28억3천만원(국비 80%+광주시 10%+구비 10%)의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지난 11월 말 현재 880가구(17가구 평균 지원액 약 106만원)에 9억3천300만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지금 추세로 보면 연말

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가 정한 '위기 상황' 조건이 까다롭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소득, 재산) 기준도 너무 엄격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지원제도가 규정된 '위기 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때 등이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광주시의 경우 1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여야 한다.

광주시내 구청의 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가 어렵고 한정적이어서 실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이나 예산 등 금융재산이 1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너무 엄격해 300만원으로 기준을 높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된 13일 오전 고3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 대광여고 3학년 여학생이 각각 자신의 성적표를 받은 뒤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언어·탐구 당락 변수

표준점수 언어↑ 수리'나'↓...인문계 최상위권 하락

수능성적 개별 통보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언어와 탐구영역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워 표준점수가 올라간 반면 수리 나형과 외국어영역은 쉽게 출제돼 표준점수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7·8면>

이에 따라 주요 대학의 인문계 최상위권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언어와 탐구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합격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인문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5점 정도 하락하고 자연계는 3점 정도 오르며 서울대 의예과는 6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입시기관들은 전망했다.

수리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해 처음으로 수리 가형이 나형보다 높게 나왔지만 중상위권 이하로는 여전히 수리 나형 응시자가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능 채점결과와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를 13일 공개하고 이날 오전 전국 수험생들에게 표준점수, 백분위, 포를 표시된 성적을 개별 통지했다.

채점 결과 언어영역은 다소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132점)이 지난해보다 5점 올랐고 반대로 외국어영역은 쉽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이 지난해보다 8점 떨어졌다.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간 표준점

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탐구 14점(67~81점), 과학탐구 16점(67~83점), 직업탐구 13점(70~83점), 제2외국어·한문이 34점(66~100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영역에서는 수리 가형 표준점수 최고점이 145점(지난해 146점), 수리 나형이 140점(지난해 152점)으로 나형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표준점수 최고점은 처음으로 수리 가형이 나형을 앞질렀다.

수리 나형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나형 응시자가 많은 인문계 최상위권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6~8점, 많게는 10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반값아파트 내년 나온다

주공 사장 "토지임대부 시범 도입"

정부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핫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청와대 변양근 정책실장이 부작동이 있더라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비친데 이어 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내년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한 사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계획 마련 단계임을 시사했다.

한 사장은 곧바로 "주공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시범 실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한 사장이 이날 오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회동을 한 데 이어 청와대도 방문했던 것을 볼 때 단순 검토 차원은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변양근 청와대 정책

실장이 지난 11일 한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삼아 한달 안에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혀 도입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입 여부가 결정됐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토지와 주택을 모두 분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토지는 임대해 주고 주택만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으로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이 도입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이 시범적으로 도입될 지역은 내년 실시 설계가 예정돼 있는 광고신도시,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등 신도시가 우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곡성 농장 AI역학조사 "이상 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곡성 메추리 부화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13일 곡성 메추리 부화장을 대상으로 임상관찰과 혈청검사(60수), 분변 간이검사(60수) 그리고 부검을 통한 주요 장기 병리검사(20수) 등 4개 항목의 정밀 역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곡성의 메추리 부화장은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한 전북 김제의 메추리 사육농장에 지난 9일 새끼 메추리 1만5천 수를 공급했던 곳이다. 전남도는 당시 새끼 메추리를 싣고 김제를 다녀온 승합차 운전기사나 차체 등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혈청검사 등 역학조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밝혀지면서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후원대학 장학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www.churim.ac.kr

이승철 광주공연
12월16일(토) 오후 7:30 광주염주체육관
광주일보사 (062)220-0531, 1544-1216

ALL LASH MASCARA LANEIGE